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팔만대장경 관전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스님과 불자들.



○해인사 보광당에 모인 3백여명의 불자들은 정태화장한 채 팔관세계를 도박도박 외웠다. 사진=이윤호 기자



○괴산 삼방리의 마애여래좌상은 독특한 수인과 단아한 체구로 고려시대 이 지방에서 유행한 불상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해인사 매월 음력 10일

### 자비수참 읽기와 팔관세계 지키기

# 가야산의 참회-발원 가행정진

"여러 부처님께 예배하옵고 다시 참회하옵나니. 참회라는 것은 본래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앞날의 좋은 인을 닦으며, 나쁜 짓을 없애고, 착한 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누군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생각을 잊으면 도로 번뇌가 생기는 것이요, 아라한이라도 습기가 맺히면 똥과 말로 짓는 짓을 다시 짓게 되는데, 하물며 범부가 어떻게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만 지혜 있는 이는 먼저 깨닫고 능히 배우치고 고치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덜어만 두어서 더욱 퍼지게 하므로 오랜 방중에 습관만 침착하고 깨달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치고 드러내어 참회한다면 어찌 죄업만 소멸될 뿐이었습니까. 다시 한량없는 공덕이 점점 자라나서 부처님의 미묘한 열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적막한 겨울 산사에 울려 퍼지는 참회와 발원!  
성철스님과 같은 대선사들이 선행을 이룬 법보총장 가야산 해인사. 한겨울인 지금도 참선수행을 위해 모여든 불자들이 정진 중인 이곳에서 겨울상사 확립을 통한 새로운 신명바탕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낮 12시 가야산 해인사 보광당. '자비수참'참회문 읽기와 팔관세계 지키기 정진법회 가 열리는 현장이다. 매월 음력 10일 부산, 대구, 마산 등 각지에서 모여든 3백여명의 불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삶을 깊이 참회하고, 참찰자로 거듭날 것을 새롭게 발원한다. 이 법회는 관공사찰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팔만대장경을 법보로 모시고 있는 법보총장으로서, 부처님 지계에 일각한 신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했다. 법회는 낮 12시 해인율원장 혜능스님의 주도로 <천수경> 봉독과 함께 시작된다. <천수경>을 외며 먼저 들뜬 마음을 정돈한 후, 삼덕사 모두가 관음정근을 하면서 부처님 전에 헌성이 꽃을 공양하는 것으로 참회기도를 위한 자제를 바르셨다. 그리고는 바로 <자비수참> 참회문을 읽는다.

"지난 세상 지은 죄와 이 세상에 지은 허물 오늘 모두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오늘 지성으로 시방세계 온 허공에 가득하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범천보살과 아라한과 사과 사상에 귀의하오나, 범상 재석과 천후 팔부의 여러 성존들은 굽어 살펴주소서."  
<자비수참>참회문은 중국 당나라 의종 때 오달국사가 지은 것인데, 인면천(人面天) 처모를 위해 산으로 들어간 오달국사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참회 기도문이다.  
<자비수참>의 참회기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회기도처럼 무조건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식의 참회기도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참회해야 하는지를 불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소리에 읽다보면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참회하는 마음이 일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첫 법회부터 등장했다는 김길상화보살(대구불교대학)은 "한줄 한줄 참회문을 읽다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구체적인 참회방법까지 알게 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자비수참>참회문 읽기와 팔관세계 지키기 정진법회는 여느 법회보다 더 신심을 들뜨게"고 말한다.  
정진법회에서 읽는 <자비수참>참회문은 운허스님이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인율원에서 교재로 쓰기위해 다시

읽기 쉽게 만들었다. 상중하로 되어 비교적 권량이 많아 3개월씩 돌아가며 상중하편을 읽는다. 음력 정월 법회인 이날은 1시간 30여분간 꼼꼼하고 <자비수참>참회문 상권을 한쪽소리로 읽었다. <자비수참>참회문 읽기가 끝나면, 혜능스님의 선함에 따라 장쾌합장을 한 불자들이 팔관세계(八關齋戒)를 함께 외며 발원하는 것으로 법회는 절정에 이른다.  
첫째, 죽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죽이지 않겠습니다.  
둘째,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풍족함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음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진실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술마시지 않는 것으로 지혜를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향수나 꽃으로 몸을 꾸미지 않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향수나 꽃으로 몸을 꾸미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충추고 노래하지 않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충추고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여덟째,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으로 높음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아홉째,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으로 배부름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때 아닌 때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팔관세계는 삼귀의, 오계, 보살계 등과 함께 재가불자가 지켜야 할 계율이다. 팔관세계의 아홉가지 내용 가운데 앞에서부터 여덟가지를 계(戒)라 하고, 아홉번째의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을 재(齋)라 한다. 팔관세계란 계법과 재법을 하나로 만들어 부른 이름이다. '관(關)'이란 여덟가지 악을 가로 막아서 모든 허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재란 삼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가지 지각한 현상 세계를 잘 다스려 모습, 소리, 냄새, 맛, 느낌, 고정관념의 여섯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악을 끊고 선을 갖추어 닦으므로 재라고 하기도 한다.  
하루 24시간 만이라도 계를 받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동안만 받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화한다는 의미다. 방탕한 생활, 사치스러운 생활, 게으른 생활을 떠나 겸손한 생활을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남에게 배울 자기를 비우고, 결국은 항원 수행으로 연결되는 이치다.  
보광당에서의 법회를 모두 마친 불자들은 팔만대장경 관전 앞에서 다시 모인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에 머리숙여 예배드리고, 그 주위를 스님의 묵타소리에 맞춰 들며 다시한번 참회와 발원을 굳게 다지는 것으로 회향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 오늘 배운 큰 가르침 따라, 다가오는 새날은 지난 날과 다른 참된 불재자로 살아갈 것을 발원합니다."

이은지 기자(efee@buddhapia.com)



○팔만대장경 관전 주위를 돌며 '법 재'자로 살아갈 것을 발원했다.



○관음정근을 하며 불전에 꽃공양을 올리는 불자들.



○불자들은 온 마음을 비쳐 자신의 죄업을 참회했다.

### 마애불을 찾아서 괴산 삼방리 마애여래좌상

오른손 무릎위-왼손 가슴앞 '독특한 수인'  
굴곡없는 사각형적 신체표현 아쉬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에 있는 이 마애불은 고려때 이 지방에서 유행한 불상양식을 따르고 있다. 낮은 연화대와 위에 앉은 이 불상은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있는데 오른손은 무릎위에 얹고 왼손은 가슴앞에서 독특한 수인을 보이고 있다. 굴곡이 없는 사각형적인 신체와 몇 가닥의 간략한 옷주름선, 도식적인 꽃잎의 형태에서 기술의 한계가 엿보이지만 안정감있는 단아한 체구, 소발의 머리에 큼직한 옥계, 삼도가 뚜렷한 목, 답답한 어깨와 무릎 등에서 앞사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수존작이다. 도량형 문화재 제 124호.  
글·사진 = 불지도교사연합회 (011-337-7312)

### 해인율원장 혜능스님 "지계는 모든 수행의 첫걸음"

**인터뷰**  
"오늘날 불교의 가장 큰 과제가 계율 정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모든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해인율원장 혜능스님의 말이다. 스님은 각종 언론매체와 불서를 통해 지식으로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불자들은 늘어났지만, 살아있는 수행을 통해 그 가르침을 자기와 하는 데에는 아직 우리 불자들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에 법회를 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술가지의 수행 뿐 아니라 재가자를 위한 수행과 신행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방장 법진스님과 주지 보광스님께서 '자비수참'참회문 읽기와 팔관세계지키기 정진법회를 적극 지원해 주셨다"면서 "자비수참'참회문 읽기와 팔관세계 지키기 정진법회를 통해 불교수행의 주춧돌인 계율정진을 회복하고, 새로운 신행의 전형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신비의 달마도 금동키드

수많은 신비한 기적과 영험을 체험한 달마도 금동키드. 100% 천연 재료로 만든 신비한 기적과 영험을 체험한 달마도 금동키드. 100% 천연 재료로 만든 신비한 기적과 영험을 체험한 달마도 금동키드. 100% 천연 재료로 만든 신비한 기적과 영험을 체험한 달마도 금동키드.

- 달마도-앞면
- 달마도-뒷면
- 관음도-앞면
- 관음도-뒷면
- 지장도-앞면

10일 이상 사찰 법보시유은 할인해 드립니다.  
전국 어느곳이나 우편배달 가능합니다.  
오후 6시까지 접수해 주세요.

대구은행 179-08-08437 예금주: 연화선원  
우체국 7022217-0031235

반야원 (053)943-4170

달마도 금동 개금 장안 목걸이

달마도 메달 관음도 메달 지장도 메달

\* 목걸이 줄은 별도 구입하셔야 합니다.